

철강업계, 철근 감산·설비 축소 ‘자율 구조조정’ 국면 본격 진입

중국발 저가물량 등 시황 악세
일부 제강사, 설비폐쇄 등 추진
“업계 내 조정 필요성 지속 거론”

국내 철강업계가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의 이중 압박 속에 철근의 감산과 설비 축소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의 인천공장 설비 폐쇄 추진과 함께 동국제강, 중소형 제강사들까지 가동 조정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20일 인천공장 노사협의회에서 90톤급 전기로 제강 설비와 연계 소형 압연 설비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리되는 소형 압연 라인의 연간 철근 생산능력은 약 80만톤으로, 인천공장 철근 생산능력은 기존 약 160만톤에서 70만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의 인천·당진·포항 합산 철근 생산능력도 연 330만톤 안팎에서 250만톤 수준으로 줄어 약 25% 축소되는 셈이다.

포항 생산기지에서도 가동 조정과 사업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 2공장

(봉형강)은 가동 중단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봉형강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 서 단기간 내 재가동 계획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포항 1공장 내 형강(H형강 등)을 담당하던 중기사업부는 매각 절차를 진행 중으로, 봉형강 사업은 감산을 넘어 휴동이 길어지고 품목 조정과 사업 정리까지 겹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제강사들도 시황 악화에 맞춰 감산에 나서고 있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을 탄력 운영하며 지난해 7~8월 약 한 달 휴동한 데 이어 12월에도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현재는 생산을 재개했지만 가동률을 50%대로 낮춰 야간 조업 중심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장은 전기로 2기·압연라인 2기를 갖춘 철근 거점으로, 연간 생산능력은 약 220만톤이다. 대한제강·와이케이 스틸·한국철강 등 중소형 제강사들도 생산·가동 일정을 조정하며 출하 속도와 재고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수급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철근 명목소비는 약 658만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약 729만톤) 대비 약 10% 감소한 수준

이다. 반면 국내 철근 압연 설비능력은 연간 1300만톤 안팎으로, 최근 소비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중국발 저가 물량 확대도 시황 악세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중국의 철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2% 증가한 1225만톤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 건설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가 아시아 철강 시장 전반의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신호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철근을 설비 규모 조정 중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와 K-스틸법을 통한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자율 조정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 설비의 경우 정부 제도 지원이 나오기 전부터 조정 필요성이 업계 안에서 거론돼 왔다”며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과잉 영향이 겹치면서 재작년부터 생산량 조절과 비용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조현상 부회장, 북미·인도 투자 ‘물꼬’ (HS 효성)

2026 다보스포럼

산업 리더·정부 관계자들 교류
화학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논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6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산업 리더 및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화학 산업의 중장기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행보를 펼쳤다.

22일 HS효성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섹션으로, 세계 주요 화학기업 최고경영진들이 모여 글로벌 화학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화학 거버넌스 미팅’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다보스 화학 거버넌스미팅에 공식 초청받은 기업은 세계적인 화학 기업인 독일 BASF, 미국 Dow, 사우디아라비아 SABIC, HS효성 등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 10여개사다. 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화학 기업 CEO들과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동 및 중국의 설비 증설이 가져올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HS효성의 친환경 소재와 저탄소 전환(Net-Zero)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부회장은 이번 일정 중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북미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과 한국기업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샴페인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조 부회장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양국 간 협력과 캐나다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



(왼쪽부터)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인도 마하리슈트라 주총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HS효성

해 감사를 전하고, 한국과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조 부회장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인도 마하리슈트라 주총리를 만나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글로벌 소재 강자인 HS효성이 해당 지역 투자를 통해 인도 내수와 수출의 기회를 잡고, 고용 창출은 물론 인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부회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각국 기업 및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친환경·저탄소 전환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다보스 포럼에 꾸준히 참석하며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고, 주요 20개국(G20)의 ‘젊은 글로벌 리더’ 조직인 ‘YGL G20 이니셔티브’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다양한 국제 경제 협력 무대에서 민간 경제 외교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현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필랑트’ 양산

르노코리아는 지난 21일 부산공장에서 글로벌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르노 필랑트’의 양산을 시작하며 1호차 생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한화, 개인주주 만났다… 인적분할 비전 공유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 제시
배당확대 검토 등 주주환원 의지 표명

㈜한화가 개인주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사주 445만주 전량 소각과 주당 배당금 1000원 설정은 물론 추가적 배당 확대 등 구체적 주주환원 정책을 공언했다.

㈜한화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인 주주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적분할 결정 이후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적분할의 핵심 목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가 제시됐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각 사업군별 전략과 투자 효율화를 통해 시장의 재평가를 유

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한화 한상윤 IR담당 전무는 “복합기업 구조로 인해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 분할을 통해 자회사 기업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주)한화는 임직원 성과보상분을 제외한 자사주 445만주 전량 소각과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배당금(DPS) 1000원(보통주 기준) 설정 등 인적분할 발표 당시 제시한 주주환원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자회사 성장 상황과 재무 여건을 고려해 추가적인 배당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도 인적분할과 주주환원정책을 둘러싼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인적분할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

이고 지주회사할인 요인을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나왔다.

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개인 주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한 주주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제고 계획을 높이 평가하며 추가적인 주주환원정책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한화는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향후 검토가 이뤄질 경우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한화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 같은 날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인적분할의 취지와 중장기 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美 대학 ‘런드리 라운지’ 오픈

세탁기·건조기 등 체험공간 조성

LG전자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 세탁 체험 공간을 조성하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테네시주립대학교 기숙사에 ‘LG 런드리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LG 런드리 라운지’에는 상업용 세탁기 16대와 건조기 24대를 비롯해 LG 올레드 TV, 모니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됐다. 학생들은 세탁을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체험 공간은 테네시주립대학교 내 최대 규모 기숙사인 ‘프레드 D. 브라운 홀’에 마련됐다. 해당 기숙사에는 약 700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테네시주립대학교는 LG전자의 미국 생산 거점이 위치한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이다. LG전자는 이번 공간 조성을 위해 대학에 제품과 설비를 기부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약 4만 명의 재학생과 연간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오가는 캠퍼스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LG 런드리 라운지’에 설치된 상업용 세탁기에는 인버터 다이렉트 드라이브



美 테네시주립대 기숙사에 마련된 ‘LG 런드리 라운지’ /LG전자

(DD) 모터 등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이 적용됐다. 세탁통과 직접 연결된 인버터 DD 모터는 진동과 소음을 줄이고,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은 높여 다수의 사용자가 장시간 이용해도 안정적인 구동된다.

LG전자는 상업용 세탁기 전용 애플리케이션 ‘런드리 크루’를 제공해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학생들은 기숙사 방이나 강의실에서도 세탁기·건조기 사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탁 완료 알림을 통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광도영 부사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LG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